

광주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3명 '장애인'

고령화에 나홀로 가구 급증 ... 고독사 등 위험 노출 무연고 장애인 점점 사회적 복지 시스템 마련 시급

#. 지난해 8월 8일 오후 1시50분께 광주 시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에서 임모(7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임씨는 수년 전부터 가족과 연락을 끊은 뒤 쓸쓸히 홀로 지내왔다. 남구는 숨진 임씨의 가족을 수소문해 찾아냈지만, 헛수고였다. 가족은 임씨의 시신인수를 포기했다. 결국 남구는 75만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지체장애 2급인 임씨의 장례를 유족 대신 치러줬고 광주영양공원에 봉안했다.

최근 광주·전남에서 고령화에 따른 '나홀로 가구'가 급증하면서 사회와 단절한 채 지내다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

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고독사 등 각종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데도, 스스로 몸을 감추 등 도움을 거부하는 탓에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도움마저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특히 광주가 지난해 발생한 무연고자 고독사 20명 중 6명(30%)은 장애인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무연고자 장애인 고독사 비율이 두번째로 높았다. 이들을 점검할 수 있는 사회적 복지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

은 2018 시도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는 20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30%인 6명은 장애인 무연고자로서 확인됐다. 전남은 무연고 사망자 47명 중 7명(8.5%)이 장애인이었다.

지난해 전국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483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2279명의 21.2%를 차지했다.

광주의 무연고자 사망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17개 시도별로 지난해 무연고자 사망자 중 장애인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 31.5%, 광주 30%, 충남 28.6%, 경남 28.1%, 전북 27.1%, 충북 25% 등 순이었다. 반면 전남은 8.5%로 강원 8.2%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광주의 장애유형별 사망자를 보면 ▲정신 3명 ▲지체 2명 ▲뇌 병변 6명 ▲장루·요루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스스로 복지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나홀로 가구를 점검할 수 있는 사회적 복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검 인수를 포기해 무연고자될 경우 무연고 주검은 관련법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장례를 치르고 있다. 광주시의 5개 자치구는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면서 시신 인수·화장·봉안 등을 거치며, 병원측에 한 구당 75만원 상당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더불어 사는 행복한 일터" 장애인 고용촉진 캠페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양중주)는 최근 광주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9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매년 4월에 있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광주장애인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광주지역본부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공단 사업안내 리플렛과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배포하며 장애인 구직과 취업을 독려했다. <광주 장애인고용공단 제공>

광주 동구, '2019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유공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광주시 동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19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유공기관에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 25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지난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실적과 우수사례 등을 심사했다. 전국적으로 총 9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으며, 동구는 '아토피·천식! 굿바이' 사업으로 광주·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동구는 기존의 아토피·천식 예방교육 대상이 아동에게만 한정돼 가정으로 연계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주말을 활용

한 '가족과 함께 하는 오감만족!' 등 가족 구성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환경 조성과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관련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도시 동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는 다음달 7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리는 '2019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에서 있을 예정이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장애인 공감 Festival 최근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9년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해남군민광장·다목적실에서 '공감 Festival' 행사를 개최했다.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제공>

광주 남구, 마을로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광주시 남구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를 실시한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진행한다.

치매 조기검진은 이달 29일 양림동을 시작으로 오는 6월7일까지 방림동, 봉선동, 사직동, 백운동, 월산동, 주월동, 송암동, 효덕동, 대촌동 등 남구 내 16개동을 순회한다.

만 60세 이상 주민들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공지사항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29일~6월 7일 16개 동 순회

에서 각 동별 진행 날짜를 확인한 뒤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해당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남구는 동행정복지센터를 치매 조기검진 거점으로 활용, 치매 고위험군 분류 가능성이 높은 7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만 75

세에 진입하는 노년층 인구를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또 치매 검진을 통해 인지 저하로 판정된 어르신들에게 치매진단을 위한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치매환자로 판명될 경우 다양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치매는 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망설이지 말고 관련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저소득층 산모 가정에 산후관리비 준다

광주 서구, 출산 장려위해 가정당 100만원 지원
쌍둥이 최고 100만원 추가

광주시 서구가 광주 최초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산모 가정에 산후관리비를 지원한다.

23일 서구에 따르면 산모 가정지원 은 지난 1월1일 이후 출산 가정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둥이 출산 가정은 50만원,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별도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62-350-4706)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임신·출산·육아의 시기별, 대상자별 출산 환경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시행하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2019 마음챙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민교육 교육생 모집

광주광역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마음챙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민교육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마음챙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민교육은 무엇인가요?
나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마음챙김 수업과 자신의 콘텐츠, 영상 제작 기법 등의 수업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나만의 영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
- 모집개요

자격요건	교육내용	교육시간	모집인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미취업자, 경력단절여성 우선)	미래사회의 준비된 나, 마음발전, 감정탐색, 1인 미디어 개론, 현역 크리에이터와의 만남, 영상기획, 촬영, 편집, 현장 견학 등	48시간	20명
- 모집기간 2019. 04. 08(월) ~ 2019. 04. 23(화)
- 교육기간 2019. 04. 24(수) ~ 2019. 08. 07(수)
- 교육시간 매주 수 18:00 ~ 21:00
- 교육장소 광주여자대학교 강의실 및 실습실
- 교육특전 교육비 지원, 교재 제공, 수료증 발급 등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및 메일 접수(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접수처 우) 62396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어등관 1층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의 062) 950-3583~5

주최 |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Gwangju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 주관 |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